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도시철도, 1명이 1좌석 이상 점유 땀 과태료	샌프란시스코
사회·복지	2	2018년부터 청년층에 활동연대수당 지급 확대	파리
	4	근무환경·휴가제 개선 기업에 장려금 준다	도쿄
행정·교육	6	변두리 공공임대단지에 유기농·친환경제품 도매가 공급	리옹
도시교통	8	새 중앙역사에 독특한 콘셉트의 3개 광장 조성	원헨
도시계획·주택	11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초점’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드니
뉴스인사이드	13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도시철도, 1명이 1좌석 이상 점유 땀 과태료

‘1인 1좌석제’ 조례 제정...출퇴근시간대 이용질서 강화 목적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도시교통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도시철도 바트(BART)의 이용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에 도시철도 이용에 관한 기본질서 강화와 객차 내 편의성 향상을 위해 ‘1인 1좌석제(One Ticket, One Seat)’ 조례를 2016년 4월 의결
 - ‘1인 1좌석제’: 도시철도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6시~10시와 오후 3시~7시에 1명이 좌석 1개 이상을 점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조례의 효력은 6개월 후 발생하며 조례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
 - 장애인나 고도비만으로 여러 좌석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예정
 - 또한 불합리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
- 과태료 부과
 -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출퇴근시간대에 1명이 짐을 많이 싣거나, 여러 좌석에 걸쳐 누워있는 등 1명이 좌석 1개 이상을 점유할 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벌금액
 - 처음 적발 시: 구두 경고
 - 이후 재적발 시: 100달러(117,000원)
 - 1년 이내 두 번째 적발 시: 200달러(234,000원)
 - 5년 이내 추가로 적발 시: 500달러(585,000원)

<http://www.bart.gov/news/articles/2016/news20160415>

<http://www.citylab.com/commute/2016/04/in-san-francisco-hog-a-train-seat-and-get-a-100-ticket/478587/>

사회·복지

2018년부터 청년층에 활동연대수당 지급 확대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Caisses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은 현재 사회적 최소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청년층(18~24세)의 복지를 위해 2018년부터 조건에 맞으면 월 400유로(532,000원)의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을 지급하기로 결정
 - ‘활동연대수당’: 미취업자, 월 최저소득에 의존하는 25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 또는 18세 이상의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의 한계치 상황을 없애기 위해 배당되는 수당으로 2018년부터 수혜 범위를 확대
- 배경
 - 프랑스에서는 약 400만 명이 사회적 최소 수당을 받고 있으나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현재 프랑스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 수당은 크게 3가지인데 소득과 노동활동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함.
 - ‘활동연대수당’: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5,000명에 불과
 - ‘청년 보장(la Garantie Jeunes)’: 무직 상태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젊은 층을 돕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수혜자는 46,000명
 - ‘활동 수당’(Prime d’Activite): 월수입이 1,500유로(200만 원) 이하(독신자 기준)인 18세 이상 모든 청년노동자의 생활 지원과 구매력 보장을 위해 2016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수혜자는 323,000명
- ‘활동연대수당’의 신청 조건
 - 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의 풀 타임 근무 경력자
 - 학생도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의 풀 타임 근무(인턴 기간 제외) 경력과 최근 3개월 동안 최소 500유로(67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함.

－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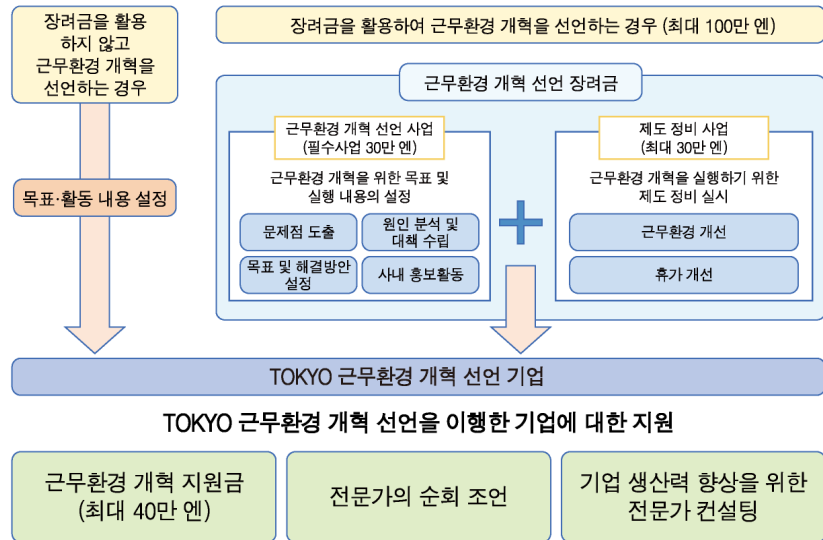
- 경제활동 중인 학생들에게도 활동연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및 재취업 기간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http://droit-finances.commentcamarche.net/contents/1431-rsa-jeunes-conditions-et-demarches>

근무환경·휴가제 개선 기업에 장려금 준다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일본 도쿄都는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근무환경과 휴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도쿄 근무환경개혁선언 기업제도(TOKYO 働き方改革宣言企業制度)’를 2016년 4월에 발표
 - ‘도쿄 근무환경개혁선언 기업’: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개혁을 선언한 기업
 - 또한 근무환경개혁 선언 후 2~3년 이후의 목표 설정 및 현실화를 위한 방안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해야 함.
- 도쿄도의 지원 사항
 - 장려금 지원
 - 도쿄도는 대상기업에 필수사업 부문 30만 엔(321만 원)과 장려사업 부문 30만 엔(321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
 - 필수사업 부문
 - 긴 업무시간의 축소 및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문제점 도출
 -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목표 및 해결방안의 설정
 - 사내 홍보활동 시행
 - 장려사업 부문
 - ‘근무환경 개선’과 ‘휴가제도 개선’ 항목에서 제시된 제도를 1개 이상 개선할 때 각각 10만 엔(107만 원) 등 최대 30만 엔(321만 원)을 지원
 - 경영 지원
 - 근무환경개혁 선언 후 피드백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근무환경개혁 지원금 40만 엔(428만 원)을 추가로 지원
 - 근무환경개혁 선언 후 실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향후 진행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순회 조언 실시
 -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사업컨설팅 지원



도쿄 근무환경개혁선언 기업제도(TOKYO働き方改革宣言企業制度)

- ‘근무환경’ 개선 항목
 - 근로자가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 정규직이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단시간 정규직 제도’
 - IT를 활용하여 장소와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는 ‘텔레워크 제도’
 -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퇴근 시점과 출근 시점 사이에 일정 시간의 휴식시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등
- ‘휴가 제도’ 개선 항목
 - 골든위크나 여름, 겨울 등에 휴가를 계획적으로 부여
 - 생일이나 기념일 등 정해진 날 또는 미리 신고한 날에 휴가를 부여
 -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제도
 - 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제도
 - 근로자가 사회봉사 활동을 원할 때 휴가를 부여하는 ‘봉사활동 휴가제도’ 등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f2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DATA/20q4f200.pdf>

행재정·교육

변두리 공공임대단지에 유기농·친환경제품 도매가 공급

프랑스 리옹市 / 행재정·교육

- 프랑스 리옹 광역市の 공공임대주택 관리공사(EMH)는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유기농 농산물과 친환경 공산품을 도매가격으로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브락(VRAC)을 2014년 설립
 - EMH(Est Métropole Habitat)는 브락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소비생활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함.
 - VRAC(Vers un Réseau d'Achat en Commun): ‘공동구매 네트워크를 향하여’라는 뜻의 브락은 빈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좋은 품질의 유기농 제품과 지역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
- EMH의 브락 운영
 - EMH는 리옹시와 ‘아베 피에르 재단(Fondation Abbé Pierre)’의 지원을 받아 브락을 운영
 - 지원 내역
 - 인건비와 임대주택단지 내 사무실 제공
 - 배송용 차량 구입비 등
 - EMH에서 주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턴직원 파견 등
- 브락의 운영 방식
 - 사업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
 - 회원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브락에서 공급하는 물건을 주문
 - 브락은 지역의 생산자로부터 도매가로 구입한 생산물을 EMH가 지정한 날에 지정한 장소로 배달
 - 각 배포 장소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5~6명의 자원봉사자가 회원들이 주문한 물건을 배분

- 브락의 사전 준비

- 사업시행에 앞서 브락의 담당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브락의 제품과 배송일정 등을 알릴 연락망 구축
- 유기농 생산물의 시식회 개최



브락(VRAC)으로부터 문화센터나 시민단체의 사무실에 배송된 유기농 식품과 친환경 생활용품들 각자 주문한 만큼 배분 중인 지역주민

- 기타사항

- 설립 2년 만에 570명이 회원으로 가입
- 5곳에 고정적인 배송이 이루어지고, 8개의 공동구매 그룹이 결성됨.
- 변두리에서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 향후 계획

- 브락은 그다음 단계로 주거보험, 가스안전보험, 인터넷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생활서비스를 묶어 지역 할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 등을 기획 중
- 또한 파리, 보르도 등에도 사업을 확장할 예정

<http://www.grandlyon.com/metropole/politique-de-la-ville.html>

<http://www.forumemploi-solidaire.org/vrac-vers-un-reseau-dachat-en-commun/>

<http://www.grandlyon.com/metropole/politique-de-la-ville.html>

<http://lejournaldeleco.fr/lassociation-lyonnaise-vrac-rend-les-produits-bio-accessibles-a-tous/>

<http://lejournaldeleco.fr>

도시교통

새 중앙역사에 독특한 콘셉트의 3개 광장 조성

독일 뮌헨市 /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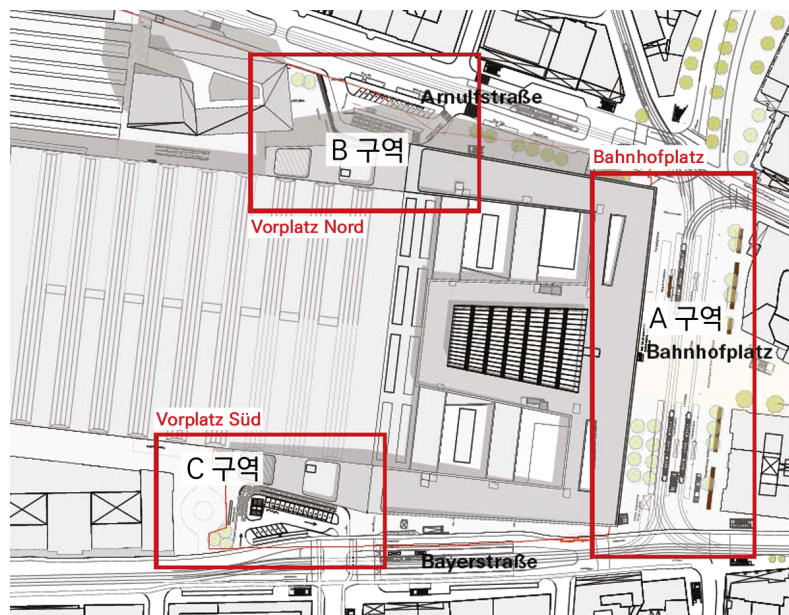
- 독일 뮌헨市와 독일철도주식회사는 노후화된 중앙역을 시민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건설 예정인 뮌헨 제2광역철도를 비롯한 각종 노선의 연결망 재정비 및 역사 앞 광장의 활용도 제고 등이 포함된 ‘뮌헨 신 중앙역사 건립 계획’을 2016년 4월 발표
- 배경
 - 뮌헨 중앙역은 하루 평균 42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설
 - 또한 시 중심부와 보행자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뮌헨의 관문
- 개요
 - 신 역사는 구 역사 공간을 바탕으로 편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계획
 - 역사 북측에는 19층 높이의 별관을 건설할 계획
 - 신 역사를 중심으로 3개의 콘셉트를 가진 광장을 조성



뮌헨 신 역사 내부 전경

- 세부계획

- 공간 계획
 - 기존 대합실 공간의 현대화
 - 승강장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확장
 - 역 광장과 도심으로 연결되는 신 대합실에는 대형 유리천장을 설치
 - 확장된 공간에는 식당, 휴게실, 회의장, 이벤트 공간 등을 배치
 - 장거리 열차노선과 근거리 노선, 도시 광역철도, 지하철 간의 환승 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
 - 대형 지하주차장의 신축
- 별관 계획
 - 별관 1층에는 철도 서비스센터와 식당을 배치
 - 별관 상층부에는 사무실과 호텔을 유치
- 신 역사 주변 계획
 - 중앙 광장: ‘뮌헨 신 역사 주변 계획안’의 “Bahnhofplatz” (A 구역)
 - 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보행자 통로를 개선
 - 대중교통 이외의 차량통행은 제한
 -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는 등 휴식공간의 기능 강화



뮌헨 신 역사 주변 계획안

- 북부 광장: ‘뮌헨 신 역사 주변 계획안’의 “Vorplatz Nord” (B 구역)
 - 상단부에는 보행자 통로, 택시 승강장, 공영주차장을 배치
 - 하단부에는 벙커 형태의 자전거 주차장을 배치
 - 남부 광장: ‘뮌헨 신 역사 주변 계획안’의 “Vorplatz Süd” (C 구역)
 - 택시 승강장, 주차장, 소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배치
 - 지하철 4호선 및 5호선과의 연결 통로 설치
- 기타 사항
- 자전거 이용 장려
 - 자전거 주차장을 현재 2천여 대에서 3천 대로 확장
 - 중앙역 주변의 자전거 도로에서 중앙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 공청회에서 중앙역사 건립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 세부설계에 반영할 예정

<https://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Stadtplanung-und-Bauordnung/Projekte/Hauptbahnhof.html>

https://www.muenchen.de/rathaus/dms/Home/Stadtverwaltung/Referat-fuer-Stadtplanung-und-Bauordnung/Projekte/Hauptbahnhof/MUENCHEN_HBF_Leporello_6-Seiter_WEBes.pdf

https://www.muenchen.de/rathaus/dms/Home/Stadtverwaltung/Referat-fuer-Stadtplanung-und-Bauordnung/Pressemitteilungen/20150430_PM_Hauptbahnhof0/20150430_PM_Hauptbahnhof.pdf

도시계획·주택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초점’ 도시개발계획 수립

호주 시드니市 / 도시계획·주택

- 호주 시드니市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계획 중인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 초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
 - 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에 초점을 맞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임.
- 배경
 - 2031년 시드니시 인구는 2011년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인구밀도와 1인 가구의 증가
 - 사회경제적 요인
 - 절대 빈곤으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이 8%에 달함.
 - 주택구매능력의 감소로 전체 시민의 1/3과 저소득 가구의 84%가 심각한 주거 스트레스를 경험
 -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도시 운영
 - 지난 10년간 공원, 수영장, 보육시설, 도서관 등에 3억 3,500만 호주달러(2,875억 원)를 투자
 - 문화행사, 지역사회 축제 등 사회서비스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함.
- 주요 내용
 - 시드니시는 향후 도시의 발전에서 경제개발보다 사회개발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현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기회 요인을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시의 비전, 구현 원칙, 시의 역할 등을 명시
- 구현 원칙
 - 모든 시민이 교육, 고용, 주택, 서비스 등 시의 자원에 동등한 접근

- 시민들의 장점을 지역사회 개발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촉진
- 문화, 언어, 성적 정체성 등의 다양성 존중과 이들 간의 사회적 연계 강화
- 나이나 장애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사회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정부, 민간, NGO, 시민들의 협력에 기반을 둔 시의 웰빙 향상 추진
- 시민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지원
-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시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추진 방향

- 포용도시(Inclusive City)
 - 고용과 교육기회의 다양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공유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제공
- 연결된 도시(Connected City)
 -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시민들 간의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 제공
- 살기 좋은 도시(Liveable City)
 - 공공장소나 시설 등의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 충족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환경 구축
 -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시설 확충
- 참여 도시(Engaged City)
 -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
 - 시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 향후 계획

- 시드니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확
정할 예정
- 또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할 예정

<http://www.sydneymedia.com.au/building-a-more-just-resilient-and-inclusive-city/>

<http://sydneyyoursay.com.au/socialsustainability>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일본 도쿄都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중국 상하이市

서울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 150개 언어로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2016.04.20
- 뉴욕시는 뉴욕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시행함. 150개 언어로 전화·문자 상담이 가능하며, 시는 상담서비스에 3년간 약 2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71-16/provider-chosen-nyc-support-upcoming-24-7-mental-health-hotline>

- IDNYC,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혜택 확대 2016.04.21
- 뉴욕시는 시민이 IDNYC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확대함. IDNYC로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진료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IDNYC : 2015년 1월부터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14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뉴욕시 신분증으로,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활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79-16/city-additional-benefits-idnyc-cardholders-new-integrations-nyc-health->

- 2030년까지 대기질 향상 등 주요 정책의 세부 목표 발표 2016.04.22
- 뉴욕시는 2015년 4월에 발표한 주요 정책의 세부 목표를 설정해 최근 이를 발표함. 세부 목표는 ① 2030년까지 대기 질 향상, ②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절감, ③ 2030년까지 폐기물 매립 제로화, ④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⑤ 2025년까지 뉴욕시민 80만 명의 빈곤 탈출, ⑥ 2040년까지 49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⑦ 2024년까지 신규 저렴한주택 8만 세대 건설 및 저렴한주택 12만 세대 보존 등임.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87-16/fact-sheet-mayor-de-blasio-on-significant-onenyc-progress>

도쿄

- 아름답고 쾌적한 도쿄도 만드는 녹화사업 시행 2016.04.01
- 도쿄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녹화사업을 시행함.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 100㎡ 이상의 토지에 나무와 화초를 재배하고, 녹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1/2에서 3/5까지 지원할 계획임.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1600.htm>

- 민간과 공동으로 '도쿄 홍보' 상품 기획·개발 2016.04.08
- 도쿄도는 여행지로서의 도쿄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줄 '도쿄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도쿄 홍보 제품을 공동으로 기획 및 개발하기로 함. 민간기업의 상품 라벨,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도쿄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임.

※ 민간사업자: 기린맥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CUC 서포트, 핫 맨 주식회사 등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8400.htm>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2016.04.15
- 도쿄도는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도쿄도는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약 50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에 가입하면 1인당 약 100만 원을 가산해 지원함.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f300.htm>

- 노사 양측 대상 '길거리 노동 상담' 2016.04.21
- 도쿄도는 고용과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사를 위해 길거리 노동 상담을 시행함.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와 직장 내 왕따·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 관련 법제와 지식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배포함.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m500.htm>

싱가포르

- 16억 원 투자해 기업 발전을 위한 에코시스템 개발 2016.04.05
- 싱가포르는 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에코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함.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산업과 연구 협력에 약 3조 원을, 2016년 국가 연구 기금에 약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에코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사업에 약 16조 원을 투자하기로 함.

<http://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need-for-ecosystem-that-supports-innovation-mps>

- 장기 미고용된 전문경영인·기업경영진 지원 계획 발표 2016.04.09
- 싱가포르는 장기간 고용되지 못한 전문경영인과 기업경영진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에 적응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경력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가 최소 임금이 약 343만 원인 일자리를 만들어 자격에 맞는 구직자(40세 이상의 전문직 중 장기간 미고용 상태인 자)를 고용하게 하고, 이들에게 현장훈련을 시키도록 함.

<http://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more-help-for-laid-off-pmets-to-get-new-jobs>

- 텐가지역, 주변 자연·주룡혁신지구와 연계 개발 2016.04.12
- 싱가포르는 텐가지역 700ha를 주변 자연과 주룡혁신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기로 함. 신규주택 55,000세대를 건설하고, 신규 중심업무지구 및 수변공간 조성 등을 계획함.

<http://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tengah-to-be-developed-into-a-forest-town>

상하이

- 개인신용기록에 교통처벌 내역 남긴다 2016.04.14
- 상하이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 노상주차 차량을 촬영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함. 교통사고 등으로 교통처벌을 받은 운전자는 개인신용기록에 교통처벌 내역이 남겨지게 되고, 은행대출 시 개인신용기록 조회에서 처벌 내역 확인이 가능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478.html>

- **외국인 학생 위한 교통안전지침서 다양한 언어로 제작·배포** 2016.04.20
- 상하이시는 외국인 학생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와 규정이 수록된 교통안전지침서를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배포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548.html>

- **공공버스 50% 연말까지 클린에너지 버스로 교체** 2016.04.26
- 상하이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버스의 절반을 클린에너지를 활용한 버스로 교체하기로 함. 또한 연말까지 16개의 버스터미널 내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고, 2018년까지 공공버스의 70%를 클린에너지 버스로 교체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597.html>

- **예술·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Dream Center 조성 계획 발표** 2016.04.27
- 상하이시는 예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Dream Center를 조성하기로 함. 중국 미디어 캐피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란 콰이퐁 그룹의 공동투자자로 합작회사인 ‘오리엔탈 드림웍스’ 본사가 Dream Center 내에 들어설 예정이며, 극장과 콘서트홀에서 브로드웨이 쇼와 유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개최될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613.html>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

서울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서울

-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까지 27% 감축 2016.04.06
- 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6.9%(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하기로 함. 이를 위해 자급자족형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기존 공공 건축물에서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여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로 함. 또한 ‘제1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16~’20)’을 발표하여 신축 건축물의 기본 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등을 도모함.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06&list_end_date=20160406&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2&communityKey=B0158&boardId=26615&act=VIEW

- 12개 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2016.04.10
- 서울시는 어린이집, 경로당, 노숙인시설, 한부모가족시설 등 12개 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복지 수준을 높이기로 함. 이용자와 보호자, 소속직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기반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 복지시설 유형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쳐 복지시설별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함.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10&list_end_date=20160410&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26672&act=VIEW

-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에 ‘공동체 재생사업’ 시행 2016.04.15
- 서울시는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의 도시재생에 주민들이 주도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재생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공동체 재생사업’은 주체 형성, 역량 강화,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의 상생과 발전을 이끄는 주민 주도의 재생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15&list_end_date=20160415&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26742&act=VIEW

- **‘노량진 일대 수변 문화·관광명소로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2016.04.20
- 서울시는 노량진 일대를 여의도·노들섬·용산과 연계해 수변·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노량진 일대를 다양한 도시기능이 녹색·보행으로 연결된 수변 관광·문화 특화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등 주변지역을 보행교로 연결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다양한 여가·관광·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명소로 만들 계획임.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20&list_end_date=20160420&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26829&act=VIEW

-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시행** 2016.04.24
-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방식의 새로운 복지사업인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시행하기로 함.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 시 원금과 성과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24&list_end_date=20160424&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26865&act=VIEW

-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 비즈니스 교류 핵심공간으로 조성** 2016.04.25
- 서울시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41만 4,205㎡를 서울의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함. 주 경기장은 보존 및 재생시키고, 종합운동장 일대는 전시·컨벤션, 스포츠, 공연·엔터테인먼트, 수변 문화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임.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25&list_end_date=20160425&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26885&act=VIEW

- **용산전자상가를 청년창업 메카로 조성** 2016.04.26
- 서울시는 용산구 나진상가에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소’와 서울 거주 외국인을 겨냥한 ‘글로벌창업센터’를 오픈해 용산지역을 청년창업가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함. 이를 통해 제조형 창업문화의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기대함.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26&list_end_date=20160426&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26917&act=VIEW

- 사대문 안 도심에 도보관광길 조성 2016.04.26
- 서울시는 사대문 안 도심에 이야기가 있는 5개 노선, 총 25.4km의 도보관광길 ‘도심보행길’을 조성하기로 함. ‘도심보행길’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색상(서울하늘색)을 적용하고, 장소성과 이곳에 얹힌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임. 또한 보행편의성 향상을 위해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위치를 개선하고 보도 내 시설물을 정비해 보행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함.

※ 5개 노선 : ① 이음길(순환노선, 9.5km), ② 옛풍경길(와룡공원~운현궁~퇴계로2가 교차로, 4.5km), ③ 늘청춘길(혜화문~동대입구, 3.8km), ④ 종로운종길(서대문역~종로~동대문, 4.0km), ⑤ 청계물길(舊 국세청 별관~청계천로~DDP, 3.6km)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26&list_end_date=20160426&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2&communityKey=B0158&boardId=27004&act=VIEW

- 창동·상계 지역에 ‘플랫폼 창동 61’ 개장 2016.04.28
- 서울시는 문화 불모지였던 창동·상계 지역에 ‘플랫폼 창동 61’을 개장함. ‘플랫폼 창동 61’은 ‘음악과 공연’을 핵심으로 음식, 패션, 사진 등의 최신유행 콘텐츠를 집약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연중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개최됨. 플랫폼 내부는 음악(1,283㎡), 라이프스타일(푸드·패션·포토)(874㎡), 커뮤니티(300㎡) 등 3개의 공간과 레스토랑, 상점, 카페 등 편의시설로 구성함.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list_start_date=20160428&list_end_date=20160428&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27082&act=VIEW

「서울시 정책 이슈와 동향」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보도자료 중에서 연구에 유용하거나, 세계 주요 도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